

자가간호에 관한 연구동향 및 명제분석 *

강현숙** · 김원옥*** · 현경선*** · 조현숙*** · 김정화*** · 왕명자***
백승남*** · 원정숙*** · 정 연**** · 석소현** · 이은미**** · 장정미****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선행 연구논문들을 종합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밝히고 차후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안내자료를 마련하는 일은 보다 좋은 연구방법을 구상하고, 연구영역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동안 간호연구 논문의 분석연구(강윤희, 이숙자, 1980; 홍근표 등, 1983; Brown, Tanner 와 Padrick, 1984; Jacobsen 와 Meininger, 1985; Moody 등, 1988)는 대부분 연구방법중심의 분석이었지만 연구목적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특정기간 동안의 논문을 전체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특정개념에 대한 연구논문을 주로 분석하였다. 즉 건강신념 모델과 만성환자의 환자역할 행위(구미옥과 이은옥, 1990), 불안 및 스트레스 개념(이은옥 등, 1992) 등의 분석이었다.

자가간호 개념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재활이 강조되는 상황이므로 간호실무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고 따라서 더욱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가간호 개념은 간호학연구에서 지금까지 자가간호 지식, 자가간호 이행, 자가간호 역량 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연구대상

과 관련변수에 관해 연구되어 왔는데 주로 Orem의 자가간호 이론이 이용되거나 검증하는 연구로서 이들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자가간호 이론의 검증과 확대를 위해서는 이미 연구된 내용과 방법을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분석결과는 차후 자가간호 연구의 방향과 변수설정 등 연구내용에도 바람직한 안내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명제분석은 자가간호 개념의 원인목록과 결과목록을 밝힘으로써 이론구축의 자료로 활용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가간호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관련요인들의 목록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자가간호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 2) 자가간호 이행과 관련된 명제의 원인과 결과변수를 분석한다.

II. 문헌 고찰

1. 국내 논문분석 경향

* 경희대학교 대학원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경희대학교 의대 간호학과
*** 경희대 병설 간호전문대학
**** 가천길 대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내간호 연구논문분석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초기 논문분석은 일정기간 동안 발표된 논문대상으로 주로 연구방법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이에 관한 연구로는 62-74년까지 국내 간호학논문 226편을 연구방법과 통계처리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한 김모임(1974)의 연구, 72년부터 5년간 국내 3개 학술지에 발표된 276편을 분석한 조결자(1977)의 연구, 국내논문 318편을 분석한 강윤희, 이숙자(1980)의 연구, 미국논문과 국내논문 458편을 과학적 연구기준에 따라 비교분석한 홍근표 등(1983)의 연구, 학위논문 469편을 분석한 전시자 등(1994)의 연구, check list를 사용하여 대한간호와 대한간호학지에 게재된 673편을 분석한 김모임(1994)의 연구, 1779편의 학위논문초록과 결론부분을 근거로 분석한 김명자, 이명선, 이미형, 이화인(1994)의 연구 등이 있는데 주로 연구방법과 개념중심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오가실, 신희선, 김희순(1994)은 389편을 분석하고 질문지를 통해 우리나라 간호연구 현황과 문제점도 함께 분석하였으며, 박성애 등(1994)은 학위논문을 포함한 457편을 분석하여 방법, 메타 파라다임 뿐만 아니라 간호이론을 검증한 연구의 유형과 수준도 분석하였다. 한편 고옥자, 김상혜, 김희걸, 이금재, 이영숙(1994)은 주요개념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1990년에 들어와서는 특정개념에 관한 연구 논문이 분석되기 시작하였는데, 특정기간을 중심으로 한 연구논문분석보다 특정개념에 관한 논문분석이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건강신념 모델과 만성질환자의 환자 역할행위에 관한 논문 33편을 분석한 구미옥과 이은옥의 연구(1990), 불안과 스트레스 개념에 관한 456편을 분석한 이은옥 등의 연구(1992), 건강통제위 개념에 관한 92편을 분석한 이은희, 임숙빈, 김인자, 이은옥의 연구(1993), 통증개념 93편을 분석한 박정숙, 박청자의 연구(1995), 대처개념에 관한 79편을 분석한 소향숙, 조복희, 홍미순의 연구(1996)가 있다. 이들 개념들은 간호관련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서, 논문분석에서는 주로 연구방법만 분석되었고 관련이론의 적용이나 검증에 관해서는 분석되지 않았다.

그외 명상에 관한 41편을 분석한 김문영의 연구(1997), 만성환아의 가족에 관한 연구 35편을 분석한 정연, 이군자, 조결자, 백승남의 연구(1996), 그리고 간호증제에 관한 연구논문 184편을 분석한 서문자 등의 연구(1996)도 있었는데 모두 연구방법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연구논문 분석결과 1980년 후반부터 연구의 영

역과 연구방법이 다양해졌다는 사실은 대부분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특히 요인탐구를 위한 조사방법에서 인과관계, 가설검증을 위한 연구방법이 증가되고 있다(오가실 등, 1992)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론검증과 관련된 연구는 이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1990년대에서는 간호연구가 이론적 토대위에서 실시되었다(오가실 등, 1992). 그러나 Silva(1986)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확히 간호이론을 검증한 논문은 없었다(박성애 등, 1994).

2. 자가간호 개념과 연구

자가간호는 간호이론에서 가장 잘 개발된 개념이며, 가장 오래된 개념이다(Easton, 1993). 1971년 자가간호 이론을 발표한 Orem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고 정련하여, 1995년 자신의 저서 제5판을 발간하였으며 자가간호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발전시켰다. 이와 같이 Orem의 자가간호 이론은 간호영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논의된 간호 이론이며(Meleis, 1997), 간호연구에도 가장 많이 적용된 간호이론중 하나이다(Moody 등, 1988).

Orem이론의 외국연구 경향을 보면 Moody 등(1988) 연구에서는 1977-1986년까지 미국의 6개 주요 간호연구 잡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720편을 분석한 결과 간호이론을 적용한 논문은 11%이며 그중 Orem이론이 가장 많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pearman, Duldt와 Brown(1993)이 1986-1991년에 게재된 Orem이론을 적용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32%는 Orem이론을 아주 조금 이용하였고 55%는 Orem이론을 이론적 틀로 사용되던 연구결과에서는 논의되지 않아 불충분하게 이용하였으며, 단지 13%만이 이론을 적절히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Orem의 이론은 연구도구 개발을 위한 토대로 적용되었는데(Meleis, 1997), 이는 복잡한 이론의 개념을 조작하기 위한 과정으로 또한 이들 개념을 근거로 타당성있고 신뢰성있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Miller(1982)는 당뇨병환자의 자가간호 요구의 범주를 규명하기 위하여 Orem이론을 이용하였고 간호체제와 자가간호 행위와의 관계를 검증한 Hartley(1988)와 산전간호행위와 자가간호 역량간의 관계를 연구한 Hart(1995)는 명제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전시자 등(1994)의 연구에서 1개 대학원과 2개 특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1편을 분석한 결

과 Orem의 이론을 적용한 논문이 가장 많았다(2편)고 보고되었을 뿐 Orem이론적용에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논문

본 연구는 1981년부터 1997년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자가간호에 관한 논문 159편 중 중설, 질적연구, 사례연구 등은 제외한 양적연구만을 대상으로 국내논문 56편과 국외논문 31편 총 87편을 분석하였다. 자가간호에 관한 국내논문은 PC통신 “천리안”의 학위논문 검색을 통하여 학위논문을 수집하였고 8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수집하였으며, 중복게재된 학위논문은 제외하였다. 국외논문은 MEDLINE과 CINAHL의 연구목록을 통해 수집이 가능한 논문을 선정하였다.

2. 논문의 분석내용 및 방법

- 1)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틀은 논문분석과 관련된 기존 문헌을 근거로 하여 연구자들이 여러 차례 회의와 예비분석을 통해 개발한 것으로, 연구방법에 관한 분석과 자가간호 명제목록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 2) 선정된 논문은 연구자들이 개발한 분석틀에 따라 국

내, 국외논문으로 분류하고, 논문출처, 연구대상자, 연구논문 발표시기, 연구개념(자가간호 하위개념), 연구설계, 자료수집방법, 자가간호 정의, 측정도구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3) 자가간호 하위개념은 본 연구자들이 함께 검토하여 요약화 하였다.
- 4) 유의도 수준 .05에서 검증된 자가간호 이행 개념에 관한 명제들을 선정하여 자가간호 이행의 원인, 결과 변수목록을 구축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 논문의 출처와 연구대상자

자가간호 관련논문 87편을 분석한 결과 연구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논문 중 국내논문이 64.4%이었고, 학위논문은 48.3%이었으며 학위논문의 경우는 모두 국내논문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건강-질병 상태는 만성질환이 79.3%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의 연령층은 성인이 77.0%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 표본수는 51-100명의 경우가 39.1%으로 가장 많았다.

<표 1> 국내외 연구대상 논문의 출처 및 연구대상자

특 성		구 분	국 내 No(%)	국 외 No(%)	실 수	(%)
논문 출처	학위·비학위논문	학위논문	42(48.3)	0(-)	42	(48.3)
		비학위논문	14(16.1)	31(35.6)	45	(51.7)
대	대상자의 건강-질병상태	정상인	3(3.5)	8(9.1)	11	(12.6)
		만성질환	50(57.4)	19(21.8)	69	(79.3)
		급성질환	0(-)	2(2.3)	2	(2.3)
		임산부	1(1.2)	1(1.2)	2	(2.3)
		기타	2(2.3)	1(1.2)	3	(3.5)
상	대상자연령층	아동	2(2.3)	2(2.3)	4	(4.6)
		성인	49(56.3)	18(20.7)	67	(77.0)
		노인	4(4.6)	10(11.5)	14	(16.1)
		모성	1(1.2)	1(1.2)	2	(2.3)
자	대상표본수(명)	-50	12(13.7)	5(5.8)	17	(19.5)
		51-100	22(25.4)	12(13.7)	34	(39.1)
		101-150	11(12.6)	6(6.9)	1	(19.5)
		151-200	6(6.9)	3(3.5)	9	(10.4)
		201-	5(5.8)	5(5.8)	10	(11.5)
계			56(64.4)	31(35.6)	87	(100.0)

2. 국내외 발표연도별 연구개념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연구된 개념은 <표 2>에
서와 같이 자가간호 이행으로 국내 46.0%, 국외 15.0%,
총 61.0%이었고, 발표 연도별로 볼 때 점차적으로 논문
의 수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자가가

호 역량으로서 국내에서는 9.1%, 국외에서는 13.5%였
으며 80년대 후반부터 연구되었다. 자가가간호 지식과 이
행을 동시에 다룬 연구는 소량이지만 국내에서는 80년
대 후반부터 꾸준히 연구되었고 국외에서는 80년대에만
있었다. 그리고 자가가간호지식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모
두 90년대에만 극히 적게 연구되었다.

<표 2> 국내외 발표연도별 연구개념

		81-85년	86-90년	91-95년	96-97년	계
		No(%)	No(%)	No(%)	No(%)	No(%)
국내	· 자가가간호지식	-(-)	-(-)	-(-)	1(1.2)	1(1.2)
	· 자가가간호이행	4(4.6)	8(9.1)	23(26.5)	5(5.8)	40(46.0)
	· 자가가간호지식+자가간호이행	1(1.2)	1(1.2)	4(4.6)	1(1.2)	7(8.2)
	· 자가가간호역량	-(-)	4(4.6)	3(3.3)	1(1.2)	8(9.1)
국외	· 자가가간호지식	-(-)	-(-)	2(2.3)	2(2.3)	4(4.6)
	· 자가가간호이행	1(1.2)	1(1.2)	9(10.2)	2(2.3)	13(15.0)
	· 자가가간호지식+자가간호이행	1(1.2)	1(1.2)	-(-)	-(-)	2(2.3)
	· 자가가간호역량	-(-)	3(3.3)	9(10.2)	-(-)	12(13.5)
계		7(8.2)	18(20.6)	50(57.1)	12(14.0)	87(100.0)

3. 국내외 발표연도별 연구설계

연구설계는 국내외 모두에서 상관성 연구가 가장 많았
고(국내 31.0% ; 국외 11.4%), 국내에서는 다음이 실험
연구(19.5%)였으나 국외에서는 조사연구(10.2%)였다.
90년대 들어와 모형구축연구, 방법론적 연구로 연구
설계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국내연구에서는 국외연구보다 실험연구가 더 많았던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표 3 참조>.

4. 연구개념(자가간호 하위개념)별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국내외 모두에서 질문지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국내 51.9%, 국외 33.3%).
질문지법과 관찰법을 병행한 연구는 국외연구(2.3
) 보다 국내연구(5.6%)가 많았으며 관찰법(3.5%)과

<표 3> 국내외 발표연도별 연구설계

		81-85년	86-90년	91-95년	96-97년	계
		No(%)	No(%)	No(%)	No(%)	No(%)
국내	실험연구	2(2.3)	-(-)	10(11.4)	5(5.8)	17(19.5)
	조사연구	1(1.2)	2(2.3)	4(4.6)	2(2.3)	9(10.2)
	상관관계연구	2(2.3)	10(11.4)	14(16.1)	1(1.2)	27(31.0)
	비교연구	-(-)	-(-)	-(-)	-(-)	-(-)
	모형구축연구	-(-)	-(-)	1(1.2)	-(-)	1(1.2)
	방법론적연구	-(-)	1(1.2)	1(1.2)	-(-)	2(2.3)
국외	실험연구	2(2.3)	-(-)	4(4.6)	1(1.2)	7(8.2)
	조사연구	-(-)	3(3.3)	5(5.8)	1(1.2)	9(10.2)
	상관관계연구	-(-)	2(2.3)	7(8.2)	1(1.2)	10(11.4)
	비교연구	-(-)	-(-)	1(1.2)	-(-)	1(1.2)
	모형구축연구	-(-)	-(-)	-(-)	1(1.2)	1(1.2)
	방법론적연구	-(-)	-(-)	3(3.3)	-(-)	3(3.3)
계		7(8.2)	18(20.5)	50(57.6)	12(14.1)	87(100.0)

질문지법 및 객관적 측정법을 병행한 연구(3.3%)는 국내에서만 있었다<표 4 참조>.

5. 자가간호 개념의 정의

자가간호 역량을 연구개념으로 연구한 20편의 논문을 제외하고 자가간호 지식 또는 이행 개념을 연구한 67편의 정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가간호의 이론적 정의로 Orem의 정의가 59.7%(40편)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그중 1985년의 정의를 인용한 연구는 62.5%(25편)이었으며 1985년 이후의 연구에도 1985년의 정의가 아닌 1980년의 정의를 인용한 연구가 있었다. Orem의 정의 외에도 Norris(1979)의 정의를 인용한 연구가 7.5%(5편), Orem(1985)의 정의와 Meleis와 Dracup(1982)의 정의를 합성하여 인용한 연구가 4.5%(3편), Levin(1981)의 정의를 인용한 연구가 1.4%(1편)이었다. 그러나 26.9%는 자가간호 정의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정의를 기술하지 않았다<표 5 참조>.

<표 4> 국내외 연구개념별(자가간호 하위개념) 자료수집방법

		자가간호지식	자가간호이행	자가간호지식+	자가간호역량	계
		No(%)	No(%)	자가간호이행 No(%)	No(%)	No(%)
국내	· 질문지법	1(1.2)	31(35.7)	7(8.2)	6(6.8)	45(51.9)
	· 관찰법	-(-)	2(2.3)	1(1.2)	-	3(3.5)
	· 질문지법+관찰법	-(-)	3(3.3)	-(-)	2(2.3)	5(5.6)
	· 질문지법+객관적측정법	-(-)	3(3.3)	-(-)	-(-)	3(3.3)
국외	· 질문지법	4(4.6)	14(16.1)	1(1.2)	10(11.4)	29(33.3)
	· 관찰법	-(-)	-(-)	-(-)	-	-
	· 질문지법+관찰법	-(-)	-(-)	-(-)	2(2.3)	2(2.3)
	· 질문지법+객관적측정법	-(-)	-(-)	-(-)	-(-)	-(-)
계		5(5.8)	53(60.7)	9(10.6)	20(22.8)	87(100.0)

<표 5> 자가간호 개념의 정의

정의 근원	정의 내용	편수(%)
Orem(1980, 1985)	생명, 건강,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	40(59.7%)
Norris(1979)	개인 및 가족이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잠재능력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는 행위	5(7.5%)
Orem+Meleis & Dracup(1982)	대상자가 자신의 생명,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 추천하는 내용을 스스로 이행하는 행위	3(4.5%)
Levin(1981)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과 상해의 치료, 만성질환관리 및 재활과 관련된 자가간호, 생활양식의 변화와 위험요인을 포함하는 행위	1(1.5%)
출처미상	-	18(26.8%)

6. 주요개념별 측정도구

자가간호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표 6>과 같다. 측정도구의 71.1%가 Orem 이론의 중심개념인 자가간호 개념을 근거로 개발되었다. 즉 주로 일상 생활활동 중심으로 하여 질병의 특성에 따른 자가관리 내용을 포함한 도구를 각각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자가간호 이행을 측정하는 도구는 대상자의 건강-질병에 따라 문항의 내용과 수가 매우 다양하였다. 자가간호

이행 척도의 문항수는 4-81이었고, 신뢰도는 0.71-0.95로 범위가 넓었다. 연구도구는 모두 등간척도이며, 대부분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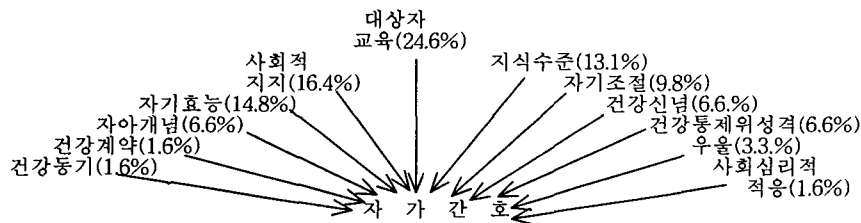
7. 자가간호 명제목록 분석

자가간호 하위개념 중 가장 많이 연구된 자가간호 이행과 관련된 연구논문(61편)을 대상으로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연구(24편)와 상관관계 연구(37편)

〈표 6〉 자가간호 측정도구

개념	대상	도구개발자(개발년도)	문항수	척도	신뢰도(α)
자가	당뇨 환자	박오장(1984)*	15	5	.86
		심영숙(1985)	15	5	.77
		구미옥(1992)*	12	7	.71
	복막투석환자	김영희(1987)*	7	5	.71
		박현숙(1992)*	43	2	-
		고혈압환자	채현주(1985)	15	5
	뇌졸중환자	이향련(1986)	10	5	.80-.84
		최부옥외(1989)*	10	5	-
		박영임(1994)*	7	3	-
	결장루환자	이영취(1994)	6	5	.72
강현숙(1984)*		14	5	.93	
김정식(1995)*		32	4	.92	
만성질환환자	한애경(1987)*	9	5	.71	
	이지숙(1990)*	17	5	.95	
	김성실(1985)*	46	5	-	
간호	송미순(1991)*	15	4	.86	
	최정자(1989)*	4	5	.72	
	조윤희(1990)*	43	5	-	
이행	정지영(1993)*	49	4	.95	
	하반신마비환자	김선희(1985)*	28	5	.91
	개심술환자	최미선(1996)*	16	5	.81
	정신분열증환자	유숙자(1991)*	58	4	.92
	절단환자	최선주(1987)*	3	2	-
	임산부	이미라(1984)*	24	5	.82
	성병환자	윤양소(1985)*	16	5	.80
	수술환자	이현숙(1994)*	11	-	.74
	노인환자	최영희외(1991)*	20	5	.78-.84
	Nicholas(1993)*	24	4	.74	
HIV환자	Lovejoy et al(1991)	81	3-4	-	
	안환자	Padilla et al(1985)*	41	5	.90
	간질환자	DiIorio et al(1991)	26	5	.82
자가	당뇨병환자	박오장(1984)*	20	2	.87
간호	복막투석환자	김영희(1987)	11	5	.90
지식	결장루환자	한애경(1987)	25	-	.79
	산모	곽연희(1996)*	15	4	.81-.91
	뇌졸중환자	Kearney et al(1979)	43	5	.77-.80
지식+	복막투석환자	박오순(1986)	46	2	.86
이행	혈액투석환자	백훈정(1992)	14	5	-

* Orem 정의를 근거로 개발된 도구(전체 도구중 71.1%에 해당함)



〈그림 1〉 자가간호 이행과 관련된 원인목록

를 선택하여 유의도 .05수준에서 검증된 명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명제에서 자가간호이행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목록을 구성하였다(표 6)(그림 1). 이중 대상자 교육이 2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사회적 지지(16.4%), 자기효능(14.8%), 지식수준(13.1%) 순으로서 전체의 68.9%를 차지하여 이상 4가지 요인이 자가간호이행의 주요 원인 목록으로 나타났다. 검증방법으로는 대상자 교육이 t, F통계량을, 사회적 지지가 r통계량을,

자기효능과 지식수준은 두 방법이 모두 사용되었다.

자가간호 이행을 독립변수로 한 연구는 12편으로 자가간호이행의 결과목록은 <표 7>, (그림 2)와 같다. 특히 생리적 지수향상(58.3%)과 삶의 질 향상(41.7%)은 자가간호 이행을 독립변수로 한 논문의 H 이상의 연구에서 결과변수로 검증되었으며 검증방법으로는 t, F통계량, r통계량이 모두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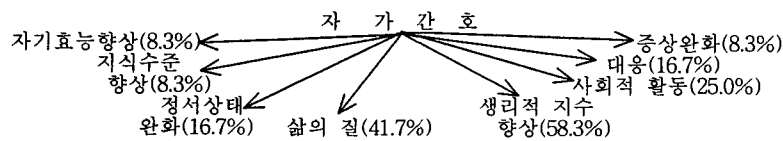
<표 7> 자가간호가 종속변수인 경우 원인변수의 분포

(N=61)*

원인변수	수	%	t, F 값 / r 값
대상자 교육	15	24.6	t = -2.30~7.45 F = 2.31~8.57
사회적 지지	10	16.4	r = .13~.61
자기효능	9	14.8	t = 5.16 F = 26.37~26.78
지식수준	8	13.1	t = 3.05~10.4
자기조절	6	9.8	t = 2.51 F = 2.31~22.31
자아개념	4	6.6	t = 6.53
건강신념	4	6.6	F = 9.20
건강통제위성격	4	6.6	-
우울	2	3.3	-
건강계약	1	1.6	t = -5.29
사회심리적 적응	1	1.6	-
건강동기	1	1.6	-

* P<.05에서 검증된 명제가 있는 논문수임.

· 원인변수가 2개인 논문이 4편 있음.



<그림 2> 자가간호 이행과 관련된 결과목록

그러나 이중 대응과 정서상태 완화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도 1에 석 있었으며, 그밖에 불안, 일상 활동장애가 각각 1에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변수로 나타났다.

자가간호 이행에 영향을 주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논문 61편 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영향을 분석하

지 않은 논문 1편을 제외한 60편을 분석하였다. 가장 많은 논문(23.3%)에서 경제상태가 자가간호이행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고, 다음은 연령(21.7%), 가족상황(20.0%), 신체장애(16.7%), 교육정도(16.7%) 순으로 자가간호 이행에 영향을 주었다.

〈표 8〉 자가간호가 독립변수인 경우 결과변수의 분포 (N=12)*

결과변수	수	%	t, F 값/r 값
생리적 지수향상	7	58.3	t=2.88-5.13 r=-.21~.72
삶의 질 향상	5	41.7	F=2.43 r=.298
사회적 활동	3	25.0	F=6.20-29.77 -
대응	2	16.7	F=30.09 -
정서상태완화	2	16.7	(원자료에 제시되지 않음)
증상완화	1	8.3	(원자료에 제시되지 않음)
지식수준향상	1	8.3	F=30.86 -
자기효능향상	1	8.3	F=27.6 -

* P<.05에서 검증된 명제가 있는 논문수임
· 결과변수가 1개 이상 측정되었음

〈표 9〉 자가간호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 (N=60)*

결과변수	수	%	t, F 값/r 값
경제상태	14	23.3	t=2.05 F=3.01-7.45
연령	13	21.7	F=2.81-7.42
가족상황	12	20.0	t=2.1-5.07 F=-3.11-17.94
신체장애	10	16.7	F=2.85-24.71 r=0.27
교육정도	10	16.7	F=2.57-12.11
성별	9	15.0	t=1.99-9.40 F=-15.24
직업	9	15.0	F=2.52-4.13
종교	3	5.0	t=2.38 F=2.99-4.44
환자-간호사 상호작용	1	1.7	r=0.25
질병이환기간	1	1.7	t=4.92

* P<.05
· 일반적 특성인 특성이 1개 이상 측정되었음

V. 논 의

1. 자가간호에 대한 연구동향

자가간호 개념은 만성질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재활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간호실무와 간호교육에서 더욱 많이 적용되고 있다. 자가간호 연구의 국외논문이 31편이고 국내논문이 56편으로 국내논문이 약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나라 간호연구에서 자가간호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고 양적 연구접근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가간호 개념은 성인 만성환자를 연구대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는데, 이는 이은옥 등(1992)의 불안 및 스트레스개념을 다룬 국내간호 논문의 분석에서 불안 논문의 대상자가 복합환자, 외과환자, 내과환자, 임산부순이며, 스트레스논문의 대상자는 환자보다 정상인이 더 많고 정상인 중에서 간호사, 학생이 대상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자가간호 개념은 성인 만성환자에게서 가장 많이 연구된 간호중재 개념이었다. 그러나 Orem(1991)은 자가간호이론에서 3가지 필수요소 즉 보편적, 발달적, 건강이탈적 자가간호 필수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제시하였으므로 질병 관리뿐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해 연구대상자를 다양화하고 또한 자신이 자가간호를 할 수 있는 연령인 학령기, 사춘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즉 연구대상자를 다양화하는 자가간호 연구가 앞으로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표본수는 51-100명의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는 자가간호 연구가 표본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조사연구와 상관관계 연구가 실험연구 설계에 비해 많이 연구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자가간호 연구는 국내의 모두에서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1996년-1997년의 논문수를 2000년까지 같은 비율로 계산한다면 90년대 초반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자가간호 개념에 관한 중요성과 관심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은옥 등(1992)의 불안 및 스트레스개념을 다룬 국내 간호논문의 분석에서는 1981년부터 1985년 사이에, 박정숙, 박정자(1995)의 통증개념을 다룬 국내 간호연구 분석과 이은희 등(1993)의 건강통제위 개념의 국내 간호연구 분석에서는 1986년부터 199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연구되어 전반적으로 연구의 증가추세를 반영하는 결과와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가간호 하위개념에 따른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자가간호 지식만을 다룬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가장 많이 다룬 연구개념인 자가간호 이행은 198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1990년대 초반에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자가간호 역량을 다룬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점차 증가하고, 자가간호 지식과 이행을 함께 다룬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국내에서 보다는 국외에서 더 많이 연구되었는데 이는 1985년에 Orem이 자가간호 이론을 좀 더 발전시켜 관련 변수들간의 설명을 좀더 명확히 하였던 것의 영향이라고 여겨지며, 이때부터 제시한 자가간호 이론의 중심개념인

자가간호역량 개념이 간호연구자들의 관심을 자극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자가간호역량 개념에 대한 연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가간호 연구는 상관관계 연구설계가 실험설계 연구보다 많았는데, 이 결과는 이은옥 등(1992)의 불안과 스트레스연구에서 분석한 조사연구, 상관관계 연구가 다른 설계방법보다 월등히 많은 것과 유사한 반면, 박정숙, 박청자(1995)의 통증개념을 다룬 국내 간호연구 분석과 김문영(1997)의 명상관련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에서 실험연구 설계가 많은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통증중재 방법이나 명상중재방법은 단기간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으나 자가간호 증진을 위한 중재효과는 보다 긴 시간이 필요되므로 실험설계를 적용하는데 시간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는 자가간호에 대한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자가간호 중재방법이 매우 미흡함을 동시에 내포하는 것이므로, 상관관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자가간호중재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자료수집 방법은 질문지법이 국내의 논문 모두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가간호이행 개념과 자가간호역량 개념은 질문지법에만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대한 관찰 등 관찰법이나 객관적 측정법을 병행한 연구들이 다소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성향은 국외 논문보다는 국내 논문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질문지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측정을 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가간호 개념의 정의를 기술한 연구 67편중 59.7%가 Orem의 정의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Orem의 이론이 간호영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Meleis, 1997)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연구시기보다 훨씬 이전의 Orem의 정의를 사용한 것은 Orem이 자신의 이론을 지속적으로 수정, 정련하는데 비해 연구자들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가간호 개념의 정의에서 Orem은 개인을 중심으로 정의한 반면에 Norris는 개인과 가족, Orem과 Meleis와 Dracup의 정의를 합성한 경우는 의료인이 추천하는 내용을, Levin은 예방과 재활을 포함하므로써 연구의 필요에 따라 Orem의 정의를 기본으로하여 자가간호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자가간호 측정도구의 대다수는 Orem이론의 자가간호개념을 근거로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Orem이론이 개념을 조작화하기 위한 도구개발의 토대로 이용된다(Meleis, 1997)는 것을 입증하며 자가간호 개념을 대상자의 건강-질병 상태에 따라 조작화하고 또는 문화에 따라 자가간호 내용을 국한하여 측정도구의 문항들을 달리 구성해야 할 필요에 따른 것이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대상자의 건강-질병 상태를 고려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널리 입증된 측정도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가간호를 국내실정에 맞게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노력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자가간호 연구의 측정도구는 연구 대상자별로 국내실정에 맞게 개발된 도구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은희 등(1993)의 건강통제위 개념의 국내간호연구 분석에서 HLC(Health Locus of Control)과 MHLC(Multidimensional Health Locus of Control)가 측정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정연 등(1996)의 만성환아의 가족에 관한 국내 연구 분석에서 가족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을 주로 미국의 측정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한 것과 차이를 나타냈다.

2. 자가간호 이행과 관련된 명제목록

원인목록과 결과목록에 의해 이론을 구축하는 경우, 현상의 원인 또는 결과만을 규명하기 때문에 주관심은 paradigm이 아니라 알고싶은 현상이다(김혜숙, 1991). 따라서 본 연구는 어떤 경우 자가간호 이행을 잘하는지, 자가간호 이행이 어떤 개념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을 갖고 자가간호 이행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교육과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 지식수준이 주요한 원인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 중 사회적 지지는 상관관계로 검정된 원인 변수이므로 인과론적 연구방법의 검정이 더 요구된다. 또한 t와 F의 통계량으로 검정된 원인변수인 대상자 교육과 자기효능, 지식수준은, 건강행위 영역에서 자기효능 개념의 관련성을 연구한 구미옥, 유재순, 권인자, 김혜원, 이은옥(1994)의 연구에서 교육프로그램과 자기효능, 자가간호 행위와의 밀접한 관계를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그러므로 대상자교육, 자기효능, 지식은 간호실무에서 자가간호 이행을 증진시키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호실무에서 이에 관한 반복적 연구를 통해 이론구축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된다. 또한 원인목록 중 지식수준(13.8%)은 대상자교육의 효과로 증진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교육이 우선적으로 추천될 수 있는

원인 변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 교육은 자가간호 이행을 증진시키는 주요요인이며, 방법으로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Hoeman, 1996). 이는 Orem(1991)의 간호체계 이론에서 간호는 환자가 내·외적으로 자가간호 행위자로서 활동할 때 지식과 기술의 습득, 의사결정, 행동수정의 도움을 요구하는 지지-교육적 틀에 기반을 둔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자가간호 이행을 독립변수로 본 연구는 자가간호 이행을 결과변수로 본 연구에 비해 연구가 저조하였다. 그러나 자가간호이행을 독립변수로 한 논문의 2/3이상의 연구에서 그 결과로 생리적지수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이 검증되었다. 이는 Orem(1985)의 생명, 건강,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자가간호를 수행한다는 정의와 맥을 같이 하며, 간호실무에서 자가간호이행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결과변수로서 이들 생리적 지수와 삶의 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앞으로 생리적 지수와 삶의 질을 결과변수로 한 연구가 지속되어 같은 연구결과가 나타나면 이를 이용하여 Orem이론의 확대도 가능하리라 고 본다.

이상에서 볼때에 자가간호 이행과 관련된 연구 논문들의 명제목록은 Orem이론의 중심개념인 자가간호의 정의를 근거로 질병이나 문제에 중점을 두고 Orem의 간호체계 이론을 적용하여 건강 결과로서 자가간호 이행을 보거나 또는 간호치료로서 자가간호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Meleis(1997)의 분석과 같은 맥락을 보였다. 그러므로 Orem의 간호체계 이론중 지지-교육적 체계에서 구체적인 간호행위로 대상자 교육,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 지식수준을 조작화하여 중요한 원인 변수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결과 변수인 생리적 지수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Orem의 자가간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Orem(1985)은 질적, 양적인 면에서 자가간호는 연령, 성별, 가족에서의 위치와 역할,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즉 경제상태, 연령, 가족상황, 신체장애, 교육정도, 성별 및 직업이 주요 외생변수로 간주할 수 있어서 앞으로의 실험연구에서 이러한 변수를 통제할 것을 제언한다. 환자-간호사 상호작용은 자가간호 동기부여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가간호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관련변수들의 목록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1981년부터 1997년 2월 까지 국내, 외에서 발표되고 수집가능한 자가간호 관련양적 논문 87편을 대상으로, 논문의 특성과 연구방법, 자가간호 이행과 관련된 명제목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가간호에 관한 연구동향

- 대상논문은 국내논문이 국외논문보다 약 2배 많았다. 그중 학위논문이 많았으며, 모두 국내논문이었다. 연구대상자는 만성환자가 가장 많았고 성인대상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대상 표본 수는 51-100명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 자가간호의 이론적 정의는 연구논문의 2/3 정도에서만 기술되었으며 그중 대부분은 Orem의 정의가 사용되었다. 연구개념(자가간호 하위개념)을 보면 자가간호 이행이 가장 많았고(국내 46.0%, 국외 15.0%), 그 다음으로는 자가간호 역량(국내 9.7%, 국외 13.5%)이었다. 연구개념별 측정도구를 보면 Orem의 자가간호 개념을 근거로 대상자의 건강-질병상태에 따라 각각 개발하여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 연구설계를 보면 국내외 모두에서 상관성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국내 31.0%, 국외 11.4%), 국외연구보다 국내연구에서 실험연구가 더 많았다. 자료수집 방법은 국내외 모두에서 질문지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국내 51.9%, 국외 33.3%), 국내연구가 국외 연구보다 관찰법이나 객관적 측정법을 이용한 연구가 많았다.

2. 자가간호이행과 관련된 명제분석

자가간호 이행과 관련된 명제의 분석결과 원인변수로는 대상자교육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대상자교육과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 지식수준이 자가간호 이행에 대한 주요한 원인 목록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리적 지수향상과 삶의 질이 자가간호 이행에 대한 주요한 결과 목록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자가간호 관련 연구는 Orem의 이론적 정의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연구 대상자는 주로 만성질환자로 이들의 자가간호를

통하여 독립성을 회복시키는 연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연구의 대부분이 자가간호 이행을 연구의 주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자가간호 이행의 경우 대상자교육,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 지식을 주요한 원 인변수로 다루는 경향이었으므로 자가간호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지-교육체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결과변수로는 생리적 지수와 삶의 질향상이 나타나 이에 대한 반복연구를 통하여 이들 변수들이 자가간호의 결과요인이 되는 Orem이론의 확대도 가능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강윤희, 이숙자 (1980). 전문지를 통해서 본 간호연구의 실제. 대한간호, 19(3), 54-59.
- 강현숙 (1985). 재활강화교육아비환자의 자가수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육자, 김상혜, 김희걸, 이금재, 이영숙 (1994). 학위논문의 주요어 분석(간호학 및 간호학관련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 1960-1991.8). 간호학회지, 24(1), 68-69.
- 곽연희 (1996). 산모 교육의 효과측정 : 산육기 자가간호와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식정도와 자신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미옥 (1992).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 행위와 대사조절에 관한 구조 모형.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미옥, 유재순, 권인자, 김혜원, 이은옥 (1994). 자기효능 이론이 적용된 건강행위 관련 연구의 분석. 간호학회지, 24(2), 278-302.
- 구미옥, 이은옥 (1990). 건강신념 모델과 한국인 만성질환 환자의 환자 역할행위. 대한간호, 29(3), 49-63.
- 김명자, 이명선, 이미형, 이화인 (1994). 우리나라 간호학계 석·박사학위 논문분석-실험연구를 중심으로-. 간호학회지, 24(1), 96-114.
- 김문영 (1997). 명상관련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간호학회지, 27(4), 923-932.
- 김모임 (1974). 간호연구의 실제와 문제점 : 연구방법 및 통계처리에 있어서. 대한간호학회 제1회 학술세미나 보고서, 13-21.
- 김모임 (1994). 한국간호연구의 개념과 연구방법의 분석. 간호학탐구, 3(1), 180-206.
- 김성실 (1986). 가정간호 요구 및 수행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강원도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 (1987). 복막투석 환자의 자가간호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식 (1995). 뇌졸중 환자의 가족지지와 자가간호 수행과의 상관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1991). 간호학에서의 연역적 이론구축의 적용 : 강의자료.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 박성애, 하양숙, 김금순, 윤순녕, 송미순, 전경자 (1994). 한국의 간호학논문 분석을 통한 간호이론의 발전방향.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논문집, 8(1), 53-78.
- 박오순 (1986). 계속적 보행성 복막투석 환자에 있어 환자교육이 투석관리 지식과 자가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오장 (1985). 사회적 지지가 당뇨병 환자의 역할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임 (1994).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자가간호 증진을 위한 자기조절 프로그램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숙, 박청자 (1995). 통증개념을 다룬 국내간호 연구 분석. 간호학회지, 25(1), 30-44.
- 박현숙 (1992). 복막투석 환자의 자가관리 이행정도에 관한 조사연구-용액 교환 절차 및 도관 출구 관리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훈정 (1992). 혈액투석 적용 만성신부전 환자의 자가간호 지식정도와 자가간호 수행정도와와의 관계 연구. 신장간호, 4, 15-24.
- 서문자, 김금순, 김인자, 손행미, 이은남, 김희진, 김문숙 (1996). 국내 성인간호중재연구 동향과 내용 분석. 간호학논문집, 10(2), 123-148.
- 소향숙, 조복희, 홍미순 (1996). 대처개념의 국내간호연구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6(3), 709-729.
- 송미순 (1991). 노인의 생활기능 상태 예측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영숙 (1984). 당뇨병 환자의 건강통제위 성격특성과 자가간호 행위와의 관계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가실, 신희선, 김희순 (1992). 우리나라의 간호연구의 현황과 문제. 대한간호, 31(3), 76-87.
- 유숙자 (1991). 정신분열증 환자퇴원교육이 퇴원후 자

- 가간호 수행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양소 (1985). 성병환자의 건강통제위 성격특성과 자가간호 행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라 (1985). 임부의 건강신념과 산전간호 이행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휘 (1994). 효능기대 증진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과 자가간호 행위에 미치는 영향-본태성고혈압 환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희, 임숙빈, 김인자, 이은옥 (1993). 건강통제위 개념의 국내간호 연구 분석. 간호학회지, 23(4), 694-712.
- 이은옥, 이은주, 이은희, 전경자, 김주현, 박재순, 이병숙, 정면숙 (1992). 불안 및 스트레스 개념을 다룬 국내간호 논문의 분석. 간호학회지, 22(3), 271-296.
- 이지숙 (1990). 결장루 보유자의 가족지지와 자가간호 이행 정도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향련 (1986). 자가간호 증진을 위한 건강계약이 고혈압환자의 건강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숙 (1994). 수술전 계획된 정보제공이 자가간호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지자, 홍근표, 양원영, 이정자, 이봉숙, 김종일, 허혜경, 임지영, 인주영 (1994). 간호학 석·박사학위 논문의 분석-1개 대학원과 2개 특수대학원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대한간호, 33(2), 45-58.
- 정연, 이군자, 백승남, 조결자 (1996). 만성환아의 가족에 관한 국내연구 분석. 아동간호학회지, 2(1), 69-92.
- 정지영 (1996). 가정간호 대상자의 질병특성과 자가간호 능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결자 (1977). 한국간호 연구 경향에 관한 통계적 고찰. 경희간호연구지 창간호, 49-58.
- 조윤희 (1990). 뇌혈관성 질환환자의 자가간호 능력과 가정간호 요구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현주 (1986). 정서적 지지가 고혈압환자의 자가간호 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선 (1996). 퇴원한 개입술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에 관한 연구. 이화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부옥, 차영남, 장효순, 김영희 (1989). 고혈압환자의 환자역할 행위 이행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9(1), 5-23.
- 최선주 (1987). 절단환자의 제특성과 퇴원시 자가간호 및 정서상태에 관한 연구 : 대구시 1개 종합 병원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 정승은 (1991). 한국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 도구 개발과 신체적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3, 70-96.
- 최정자 (1989).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자가간호 이행 행위 정도와 삶의 만족정도. 이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애경 (1988). 결장루 보유자의 자가간호에 대한 지식 정도와 자가간호 상태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근표, 김매자, 김명자, 이향련, 이경자, 박오장, 강현숙, 임난영, 김정인, 최남희, 이선옥, 박지원, 조동숙 (1983). 학술지에 게재된 간호연구 논문분석. 대한간호, 22(3), 115-130.
- Brown, J. S., Tanner, C. A., Padrick, K. P. (1984). Nursing's search for scientific knowledge. Nursing Research, 33(1), 26-32.
- DiIorio, C., Faherty, B., & Manteuffel, B. (1991). Cognitive-perceptual factors associated with antiepileptic medication compliance.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4, 329-338.
- Easton, K. L. (1993). Defining the concept of self-care. Rehabilitation Nursing, 18(6).
- Hart, M. A. (1995). Orem's self-care deficit theory : Research with pregnant women. Nursing Science Quarterly, 8(3), 120-126.
- Hartley, L. A. (1988). Congruence between teaching and learning self-care : A pilot study. Nursing Science Quarterly, 1(4), 161-167.
- Hoeman, S. P. (1996). Rehabilitation Nursing, Mosby Co. 156-157.
- Jacobson, B. S., Meininger, J. C. (1985). The designs and methods of published Nursing research : 1956-1963. Nursing Research, 34(2), 306-321.

Kearney, B. Y., Fleisher, B. J. (1979).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exercise of self-care Agency. Res. in Nurs. & Health, 2, 25-34.

Levin, L. S. (1981). Self Care : towards fundamental changes in national strateg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Education, 219-228.

Lovejoy N. C., Paul S., Freeman, E., Christianson B. (1991). Potential Correlates of Self-Care and Symptom Distress in Homosexual/Bisexual Men Who Are HIV Seropositive. Oncology Nursing Forum, 18(7), 1175-1185.

Meleis, A. I., Dracup, S. F. (1982). Inetrnational Nursing for Knowlege development. Nursing Outlook, 33(3), 144-147.

Meleis, A. I. (1997). Theoretical Nursing : Development and progress 3rd, 391.

Miller, J. F. (1982). Categories of self-care needs ambulatory patients with diabet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7, 25-31.

Moody, L. E., Wilson, M. E., Smyth, K., Schwartz, R., Tittle, M., Van Cott, M. L. (1988). Analysis of a decade of nursing practice research : 1977-1986. Nursing Research, 37(6), 374-379.

Nicholas, P. K. (1993). Hardiness, Self-Care practices and perceived Health status in older adul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8, 1085-1094.

Norris, C. M. (1979). Self-car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79, 486-489.

Orem, D. E. (1985). Nursing : Concepts of Practice (3r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Orem, D. E. (1991). Nursing:Concepts of Practice (4th ed). St. Louis: C. V. Mosby.

Orem, D. E. (1995). Nursing:Concepts of Practice (5th ed). St. Louis: C. V. Mosby.

Silva, M. C. (1986). Research Testing Nursing Theory : State of the Art. Advances in Nursing Science, 9(1), 1-11.

Spearman, S. A., Duldt, B. W., Brown, S. (1993). Resaerch testing theory : A selective review of Orem's self-care theory. 1986-1991.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8, 1626-1631.

- Abstract -

Key concept : Self-care

An Analyses of Research Trend and Proposition Related to Self-care

Kang, Hyun Sook · Kim, Won Ock**
Hyun, Kyung Sun** · Cho, Hyun Sook***
Kim, Jeong Hwa** · Wang, Meong Ja**
Paik, Seung Nam** · Won, Jeong Sook**
Jeong, Heoun*** · Sok, So Hyune*
Lee, Eun Mi*** · Jang, Jeong Mi****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se the tendency of the self-care studies, to investigate the variables related to self-care, which could be applied for the data establishing the theory of self-care.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s analyzed 83 studies available that contained the area of self-care, which was published in local and foreign areas between 1981 and Feb. 1997.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 1) Studies published in Korea were about twice more than foreign studie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the number of studies in this study tended to increase year by year. Between 1991 and 1995 were most. Analysis on the subject of those studies showed, that they were most dealt with chronic diseases an adults.
- 2) The theoretical definition of self-care were most referred to Orem's self-care. For the main concept of studies, self care performance was the most.

* Department of Nursing, Kyung Hee University.
** Kyung Hee School of Nursing.
*** Department of Nursing, Gachon Gil College.
**** Graduated students of Kyung Hee University.

3) The correlational study was most often used design and experimental study is tended to increase. The questionnaires were the most often used data collection method. There was lots of different variable measuring technique to evaluate main concepts.

4) In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propositions related to the self-care performance, a client's education,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level of knowledge as a causal variable were found. Also, the physiological index improved and quality of lif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effective variables.